

## 東武所論 四象體質의 表裏寒熱概要

金根永\*

### 序 言

1994年 8月 12日 金根永式 四象體質 診斷法을 韓醫學界에 發表한 後 釜山 韓醫學 會報와 醫林誌에 掲載되고 釜山 韓醫師 東·西 區會와 釜山 東洋醫學會, 서울 東洋醫學會에 意論과 實技를 發表하게 되었다. 또 KBS 1TV 日曜 스페셜에 紹介된바 있고 在美 L.A, 所在 “國際東洋醫學研究院”의 招請이 있어 거기에도 應하였다.(1995.2.14~2.18) 거기에서는 意論과 實技外에 和劑도 要求가 있었다. 至今까지는 四象體質 診斷이 難解이던것을 四象體質 區分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東武所論의 各 體質의 表裏寒熱을 分別함에 있어서 原典인 東醫壽世保元이나 韓東錫先生의 東醫壽世保元 註釋은 東武의 根本 뜻을 詳細하게 알기 爲하여서는 必要하나 多少 쉽게 奧意에 接近하여 보고저하여 概要를 作成 發表하게 되었으며 招請된 곳에서 要求된 和劑部分을 概要로서 發表하였다.

그런데 本人이 既히 發表한 金根永式 四象體質 診斷法 末尾에 “本診斷法의 體系化에 있어서 技術的인 面에서 또는 意論定立에 있어서 靑巖 金東匹 先生과 蘇山 孔泰泳 先生의 助力과 協助가 至大하였음을 밝히면서 朴喜寬先生께도 같이 感謝드리는 바이다.”라고 發表한 바 있다. 이분들 外에도 몇분이 도움을 주신 분이 있었다.

金東匹所著 1994.8.19發表된 論文에 “舍岩鍼灸의 運用에 依한 病證 診斷의 適否判別法”中 8P에 “1994년에 이르러 釜山の 金根永·金東匹·孔泰泳의 三者의 合作으로 金根永式 四象體質 診斷法을 完成, 1994.8.12 韓國의 韓醫學界에 發表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며 이 方式이야말로 簡便 正確한 診斷法이니 參考하시기 바라는 바이다.”라고 發表되어 있다. 學者의 立場에서 事理가 不分明하여서는 안되겠기에 金根永과 金東匹 兩人論旨의 境圍을 여기에 밝히는 바이다. 正確한 四象體質鑑別法이 韓醫界에 普遍化되어져서 治病의 一助가 되어 自기를 衷心으로 希求하면서 序言에 代하는 바이다.(1995.2.23)

“東武所論 四象體質의 表裏寒熱 概要”를 發表하면서.

\* 鉦干 漢醫院

※ 본 논문은 1995년 9월 22일 대한한의학회에 제출된 논문임.

### I. 少陰人 腎受熱表熱病論

註 少陰人は腎陰이 大함으로 그의 腑인 大腸이 升陽作用을 잘 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므로 大腸陽氣가 胃陽으로 發展하지 못하고 鬱하게 된즉, 이것이 外感風寒이 犯하는 機會를 타고 서로 呼應하면서 邪를 驅逐하기 爲하여서 惡寒發熱로 變하게 된다. 이때에 裏陽의 上升力이 盡하게 된즉 表陰이 上升하지 못하게 되고, 表陰이 鬱하게 된즉 裏陽이 上升하지 못하게 되므로 榮衛가 俱虛하게 되고, 及其也는 亡陽症까지로 發展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陽不上升而陰不升하는 狀態는 結局 腎 部位에 熱이 鬱하게 됨으로써 腎受熱表熱病이 되는 것이다.

張仲景所論 太陽傷風 發熱惡寒者는 少陰人 腎受熱表熱病이라. 此證에 發熱惡寒而無汗者 當用桂枝湯 川芎桂枝湯 香蘇散 芎歸香蘇散 藿香正氣散이요, 發熱惡寒而有汗者 此는 亡陽初證也니 必不可輕易視之하고 先用 黃芪桂枝湯補中益氣湯 升陽益氣湯하여 三日連服而汗不止病不癒 則 當歸桂枝附子湯 人蔘桂枝附子湯 升陽益氣附子湯 用之니라.

少陰人에 있어서는 發熱 惡寒 無汗이나 發熱 惡寒 有汗하거나 모두 太陽傷風證이다. 仲景이 말한 脈浮而陰弱한가 또는 그렇지 않은가를 區分하기보다는 有汗 無汗을 區分하여서 適合有效한 治療方法을 擇해야 한다.

仲景과 그 以後의 諸家들은 惡寒 發熱 有汗에 桂枝湯을 쓰라고 했지만, 桂枝湯은 有汗證에는 힘이 不及한 경우가 많다. 同一한 傷風證이라고 할지라도 惡寒 發熱 無汗에는 桂枝湯·川

芎桂枝湯·香蘇散·芎歸香蘇散·藿香正氣散을 쓰는 것이 適當한 것이다. 그러나 發熱惡寒有汗證에는 벌써 亡陽 初期에 접어든 것이니 決코 輕視하여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먼저 黃芪桂枝湯·補中益氣湯·升陽益氣湯 같은 것으로 連 三日 服用하여도 汗不止病不癒면 이것은 藥力의 不及을 말하는 것이니, 桂枝附子湯·人蔘桂枝附子湯·升陽益氣附子湯 같은 것을 써서 亡陽의 根本을 拔本하여야 한다.

其人이 如狂者는 腎陽이 困熱也요, 小腹이 堅滿者는 大腸이 寒氣를 받아서이므로 二證이 俱見하면 當先其急이니 腎陽이 困熱則 當用川芎桂枝湯·黃芪桂枝湯·八物君子湯으로 升補하고, 大腸이 寒氣를 받아서이면 藿香正氣散·香砂養胃湯으로 和解할 것이고, 若外熱이 包裡冷而毒氣重結於內하여 或將有養虎遺患之弊則當用巴豆丹하여 下利一二度하고 因以藿香正氣散 八物君子湯으로 和解而峻補이니라. 이와 같이 하면 血證을 따로 治療하지 않아도 自癒한다.

下焦血證이란 少陰人의 脾臟陽氣가 寒邪에 掩抑되어 있기 때문에 腎臟陽氣가 그 實邪의 抗拒로 困하여 올라갈 수 없게 되므로 脾臟과 連接한 곳에서 鬱縮되어서 膀胱陽氣를 上升하지 못하게 하는 病證이다.

狂邪같이 보이는 것은 亂言狀態를 말하는 것이요, 如見鬼狀이란 譫語하는 것이다.

表證이 있다는 것은 身熱, 煩惱, 惡寒이 間間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요, 外證이 없다는 것은 身熱, 煩惱, 惡寒이 全혀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요, 이러한 證은 脾臟에 侵入한 寒邪가 膀胱陽氣를 가로막음으로써 이루어진 것인즉, 病은 脾臟의 寒邪를 除去하면서 升陽하는 것이

上策일 것이다.

外證이 모두 풀렸는데도 不拘하고 病이 낫지 않는다는 것은 陽氣가 表邪와 싸울 만한 힘이 없기 때문에 惡寒이 날 수 없게 되는 것을 意味하는 것인즉, 陽氣가 鬱縮하여서 困窮에 빠진 形勢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기 前에 升陽之劑인 人蔘桂枝湯을 써야 한다. 表未解證이나 半表半裏證이 兼在하면 먼저 桂枝湯이나 柴胡湯으로 和解시킨 다음 攻擊할 것이다.

仲景이 論한 熱入血室證이나 熱鬱上焦證은 모두 外寒所拒 때문에 이루어진 것인즉, 熱을 攻擊할 것이 아니라, 오직 陽을 升學하면서 陰邪(脾 近處에 鬱結된)를 除去하면 其他 諸證 즉 熱入血室證이나 嗽水不欲嚥證(上焦鬱寒)을 勿論하고 모두 스스로 나올 것인즉, 오직 藿香正氣散이나 香砂養胃湯 八物君子湯 같은 것으로 升陽和解함이 上策이다.

少陰人の 病候는 自汗이 없으면 脾가 든든하다는 證據이고, 大便이 燥結한즉 胃實하다는 證據인 것이다. 少陰人の 胃家實病에는 마땅히 巴豆全粒을 써야 하고, 昏睡沈死證에는 獨參八物君子湯을 써야 한다. 或 兩證이 兼하였을 때 는 먼저 巴豆丹을 쓰고 나중에 八物君子湯을 써야 한다.

脾約證이란 自汗 利小便過多 때문에 津液이 內渴함으로써 脾陰이 約化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脾陰이 約束되는 原因은 汗尿로서 脾陽을 散失하기 때문이다.

亡陽이란 것은 汗出不止하기 때문에 眞陽이 脫亡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즉, 몸이冷하여 痺寒證이 있으며 四肢가 拘急할 것은 勿論이다. 이러한 때에는 桂枝附子湯을 써야 한다.

少陰人の 太陽病을 治療함에 있어서 發汗過多를 犯하거나 利小便過多를 犯하게 되면(勿論 體內에서 偶發적으로 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體內의 陽氣(즉 土中之陽)가 自汗과 함께 流失됨으로써 脾約이 생기게 된다. 脾約은 陰證이다.

胃家實이란 것은 陽明經의 邪가 陽明腑에 轉屬되므로 胃中에 鬱熱하게 되어서 胃中津液을 渌여내는 것이다. 胃家實은 陽證이다.

太陽病表證이 因在而其人이 如狂者는 鬱狂之初證也요,

陽明病 胃家實不更衣者는 鬱狂之中證也요,

陽明病 潮熱狂言微喘直視者는 鬱狂之末證也라.

鬱狂證은 都是 身熱自汗不出也니, 鬱狂證엔 惡寒發熱과 大便不通證이 있으나 自汗은 없다.

太陽病 發熱惡寒汗自出者는 亡陽之初證也요,

陽明病 不惡寒反惡熱汗自出者는 亡陽之中證也요,

陽明病 發熱汗多者는 亡陽之末證也라.

亡陽症은 都是 身熱自汗出也니, 亡陽症에는 惡寒發熱과 大便不通證이 있으면서 自汗이 있는 것이다.

鬱狂病에 大便不通證이 있는 것은 胃家實病이지만, 亡陽病에 大便不通症이 있는 것은 寒邪가 內鬱하기 때문에 腎陽이 受困하여서 腎主出하지 못하기 때문이란 것을 알 수 있다. 입이 마르지 않으면서 腹痛泄瀉하는 것은 太陰病이요, 입이 마르면서 腹痛泄瀉하는 것은 少陰病이다. 陽證에서 땀이 안 나면서 身熱 頭痛하면 太陽陽明의 鬱狂證이요, 땀이 나면서 頭痛 身熱이 있으면 太陽陽明의 亡陽證이다.

陰證의 太陰病과 陽證의 鬱狂病에는 다만 輕重의 差가 있을 程度이지만, 陰證의 少陰病과 陽證의 亡陽病은 처음부터 이미 險證이었는데 나중에는 危證으로까지 發展한다.

亡陽病은 非但 嘔만 가지고 論할 것은 아니고 小便多少로서도 判斷된다. 便色이 맑으면서 汗自出하면 脾約病이니 이것은 脾約證이지만, 便色이 赤澁하면서 自汗出하면 陽明病의 發熱汗多證이니 危證이다. 少陽人의 裏熱病과 太陰人의 裏熱病이 汗多而小便赤澁한즉 잘 살펴야 한다.(※ 이러한 때는 體質鑑別方法으로 精確한 體質의 判別을 하면 된다.)

腎受熱表熱病論의 內容은 至極이 簡單하다. 鬱狂證이 아니면 亡陽證이다. 太陽傷寒이나 陽明의 胃家實이나 脾約證이나 厥陰病 等の 鬱狂證이 아니면 亡陽證의 範圍를 벗어나지 못한다. 腎陽이 鬱하여서 上升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면, 脾陰이 約束함으로써 亡其陽하기 때문에 일어난 것에 不過한 것이다.

治療方法은 升陽益氣가 아니면 外散表邪를 하여야 할 것이고, 內鬱之熱을 攻擊한다고 할지라도 苦寒之劑를 쓸 것이 아니라 溫熱之藥을 써야만 脾小하기 때문에 생기는 肉體의 缺點을 補護할 수 있다.

腎受熱表熱病이 生하는 바의 原因만 잘 捕捉하면 腎受熱表熱病의 病理는 저절로 昭祥하게 될 것이다.

## II. 少陰人 胃受寒裏寒病論

註 人體에 있어서 陰陽의 循環을 살펴보면 陽氣는 胸腹으로 上升하고 陰氣는 背腰로 上升하는 것인바, 陽氣가 上升하지 못하면 陰氣는 따라서 不升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收納하는 臟器인 脾胃가 陰化하게 될 것이므로 若干의 外寒이라도 犯하게 되면 여기에서 脾胃는 觸寒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脾火之氣가 旺盛한 사람은 胸腹之陽이 上升하지 못할 理도 없으며, 또한 外寒이 脾胃에 觸犯할 수도 없을 것이다.

少陰人은 脾小하므로 恒常 脾胃가 受寒함으로써 裏寒病에 걸리게 되므로 東武는 少陰人에게 胃受寒裏寒病이 있다고 論한 것이다. 少陰人은 腎受熱하면 表熱病이 되고 胃受寒하면 裏寒病이 되는 것은 腎主出하기 때문에 腎受熱病이 表에서 發하게 되고, 胃主納하기 때문에 胃受寒病이 속에서 發하게 되는 것이다.

少陰人은 霍亂關格에 걸렸을 때에 人中에 嘔이 나게 되면 危險을 免하게 된 것이요, 食滯에 大下하게 되면 크게 危險을 免하게 된 것이요, 스스로 吐하게 되면 危險을 快免하게 되는 것이다.

東武가 仲景이 論한 바의 少陰病 諸證을 論하기를 太陰病 少陰病은 모두 少陰人의 胃弱에서 오는 泄瀉인바, 이것을 區別한다면 太陰病 泄瀉는 重證中の 平證이요, 少陰病 泄瀉는 危證中の 險證이라 하였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泄瀉를 同一證으로 보고 쉽게 取扱하려고 하나, 少陰病 泄瀉를 萬一 쉽게 생각하다가는 죽음을 免하지 못할 것이다. 太陰病 泄瀉는 大腸에서 오는 것으로 太陰病 泄瀉는 溫氣가 冷邪를 驅逐하려는 泄瀉이고, 少陰病 泄瀉는 胃腸에서 오

는 것으로 少陰病 泄瀉는 冷邪가 胃中溫氣에 跳戰하려는 泄瀉인 것이다.

腹痛 自利하면서 渴證이 없고 口中이 和하면 太陰病이요, 腹痛이 自利하면서 口渴이 있고 口中이 不和하면 少陰病이다.

少陰病엔 身體痛 骨節痛과 같은 表證이 있으니 이것은 表裏가 俱病한 것인즉 大腸陽氣가 胃中溫氣를 이기면서 上升하는 까닭이요, 太陰病엔 身體痛 骨節痛과 같은 表證이 없으니 이것은 裏證만 있고 表證이 없는 것인즉 胃中溫氣가 大腸寒氣를 이기면서 下降하는 까닭이다. 少陰病은 大腸寒氣가 脾胃를 向하여서 上升而向來하게 되므로 表證이 있고, 太陰病은 胃中溫氣가 大腸寒邪를 驅逐하면서 下降而達表하는 것이므로 表證이 없는 것이다. 少陰病은 寒邪가 水와 合勢하는 것이므로 力強하고, 太陰病은 寒邪가 土와 合勢하므로 力強할 수 없다.

少陰證은 口證으로 辨證하여야 하는 것이니, 口中이 乾燥하지 않으면 溫藥을 써야 하고, 口中이 乾燥하면 下劑를 써야 한다고 한다. 下利의 色이 不靑하면 溫劑를 쓰고, 色靑하면 下劑를 쓴다. 下利清水者는 欲下之則 當用巴豆요, 欲溫之則 當用官桂附子理中湯이라. 下利清水者가 仍爲便閉者는 先用巴豆하고 後用干朮寬中湯이니라.

少陰人病에 欲吐不吐 心煩 但欲寐하는 病이 어떻게 생기는가를 보면 少陰人은 本來 腎大脾小한 體局이다. 그러므로 浪喜가 많으면 火가 妄動하면서 上盛下虛證이 되므로 心煩하면서 欲吐不吐하게 되는 것이다. 心煩하는 것은 火가 水中에서 動하지 못하기 때문이요, 但欲寐하는 것은 腎脾中之陰이 靜하려고 하기 때문이요,

欲吐不吐하는 것은 火가 欲發而不發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된즉 少陰人의 長點인 經綸이나 方略은 全部 없게 되므로 計窮力屈하게 되는 것인바, 이것을 豫防하는 方法은 自己 自身이 喜好를 節制하면서 醫師는 煩이 燥에까지 이르기 前에 陰氣를 몰아버리고 鬱火가 舒伸할 수 있는 藥을 써야 한다. 東武가 “何不早用君子 寬平心乎 早用藥則猶可免死也”라고 한 것이다. 病人이 脈沈細而疾하며 煩燥하면서도 물을 먹지 못하는 것은 陰盛隔陽하고 있기 때문이다. 病人이 萬一 물을 먹으면 그것은 陰盛隔陽이 아니라는 증거인 것이다.

少陰人 利小便藥은 乾薑 良薑 陳皮 靑皮 益智人이요, 少陽人利小便藥은 荊芥 防風 羌活 獨活 茯苓 澤瀉이니라.

表寒을 驅逐하기 爲해서 太陽經의 元陽이 熱化하여가지고 表寒과 鬪爭한 끝에 勝利의 象徴으로 나타나는 것은 太陽病 表寒證의 汗出이요, 陽明經의 元陽이 熱化하여가지고 寒邪를 막으려고 하지만 막아내지 못하고 도리어 寒邪에게 壓縮을 당하기 때문에 汗出하게 되는 것은 陽明內渴證의 汗出이다.

太陰病이 下利하는 것은 體溫이 寒邪를 驅逐하기 爲한 泄瀉요, 少陰病이 下利하는 것은 冷邪가 體溫을 壓迫하므로 일어나는 泄瀉이다.

少陰人病 有二急證하니 發熱汗多가 一急證也요, 下利清水가 一急證也니라. 少陰人은 火가 不及한 것이 特徵인바 發熱汗多하면 亡陽이 되어서 陽氣가 모두 發해 버리게 될 것이고, 下利清水를 하게 되면 陽氣가 全部下流되어 버릴 것인즉, 이것이 二大急證이 된다.

黃芪桂枝附子湯 : 黃芪 桂枝 各 3錢, 白芍藥 2錢, 當歸 甘草炙 各 1錢, 附子炮 1~2錢, 薑 3片, 召 2枚

人蔘桂枝附子湯 : 人蔘 4錢, 桂枝 3錢, 白芍藥 黃芪 各 2錢, 當歸 甘草炙 各 1錢, 附子炮 1~2錢, 薑 3片, 召 2枚

升陽益氣附子湯 : 人蔘 桂枝 白芍藥 黃芪 各 2錢, 何首烏 肉桂 當歸 甘草炙 各 1錢, 附子炮 1~2錢, 薑 3片, 召 2枚

人蔘官桂附子湯 : 人蔘 5錢~1兩, 肉桂 黃芪 各 3錢, 白芍藥 2錢, 當歸 甘草炙 各 1錢, 附子炮 2錢~2錢 5分, 薑 3片, 召 2枚

위의 四個 處方은 모두 亡陽이라는 危險한 때 쓰는 藥이다.

亡陽病 患者가 萬一小便이 회고 量이 많으면 危險한 中에서도 여유가 있는 것인즉 위의 處方에 附子 1錢式을 써서 每日 服用하고, 萬一小便이 色赤하면서 量이 적으면 危險 中에서도 전혀 여유가 없는 것인즉 附子 2錢式을 넣어서 每日 2·3服 하고, 萬一 病이 앞으로 危險에 빠질 증후가 보이면 1錢式을 쓰고, 危險한 境遇를 넘겼을 때도 1錢式을 쓰고, 病을 調理할 때에도 1錢式을 넣어서 每日 再服하여야 한다.

川芎桂枝湯 : 桂枝 3錢, 白芍藥 2錢, 川芎 蒼朮 陳皮 甘草炙 各 1錢, 薑 3片, 召 2枚

川芎桂枝湯은 少陰人의 모든 鬱을 푸는데 不可無의 良藥이다. 이 原理를 雜病治療에 應用한다면 若干의 加減으로 能히 鬱證 系統의 萬病을 退治할 수 있을 것이다.

川芎은 肝膽經의 血中氣藥으로서 清陽을 升散하면서 解鬱하는 藥인즉, 이것을 加함으로써 能히 少陰人이 外感病의 強敵인 濁陰을 물리칠

수 있다. 蒼朮은 燥胃健脾하면서 胃中陽氣를 發散하는 藥이요, 陳皮는 脾肺氣分에 들어가서 調中快膈順氣去滯하는 藥이다. 桂枝湯이 川芎 蒼朮 陳皮를 얻음으로써 少陰人이 지니고 있는 바의 鬱結이 될 수 있는 弱點을 除去하면서 邪를 蕩滌하는 良方이 되는 것이다. 少陰人이란 항상 胃水의 過盛 때문에 脾火가 頭頂까지 上升하지 못하고 겨우 胸臆間에서 往來하는 사람인즉 水氣를 凝縮시키는 것은 百害無益일 뿐이다. 必要한 것은 胸臆間에서 “榮氣不從하고 逆於肉裏”하는 脾火를 統一하는 힘을 가진 芍藥과 같은 藥인 것이다. 그런 까닭으로 四物에서 熱地를 除去한 것이러니와 氣力을 生하게 하는데 있어서도 또한 同一한 理由로 茯苓과 같이 淡滲利竅하면서 陽氣를 下降시키는 藥을 必要로 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므로 四君에도 茯苓을 除去하였다.

上述한 바는 少陰人이라는 體質의 特殊性으로 볼 때에 必須不可缺의 措置이다.

少陰人은 항상 升陽之氣와 去滯之力이 不足한 것이므로 黃芪를 加하여서 一面으로 升陽하게 하고, 또 一面으로는 衛氣를 強化하여서 邪의 侵入을 防止하게 하고 陳皮로서 順氣去濁케 하였다. 新定八物君子湯이 少陰人의 體質과 相符相合한다는 理由가 成立하게 된 것이다.

少陰人은 太陽陽明經의 鬱狂證이거나 或은 婦人의 熱入血室證이거나 厥陰의 手足의 厥冷이거나 區別할 것 없이 胸腹間에 있는 濁氣를 풀면서 調和氣血而升陽한다면 따라서 모든 病은 저절로 풀릴 것이다. 더욱이 陽明證의 胃家實에 있어서마저 先用巴豆하고 後用八物하라고 할 程度인즉 東武가 얼마나 人間이 지니고 있

는 眞氣의 消耗에 注意를 傾注하였던가를 알 수 있는 것이다.

桂枝半夏生薑湯：生薑 3錢, 桂枝 半夏 各 2錢, 白芍藥 白朮 陳皮 甘草灸 各 1錢, 治 虛寒 嘔吐 水結胸 等證.

이 處方은 八物君子湯 香附子八物湯 香砂養胃湯 赤白何烏中湯과 같이 少陰人 雜病에 그 利用度가 相當히 높은 處方이다.

嘔吐 痞滿 水結胸 怔忡 喘咳 肢體沈重 等 實로 應用範圍가 넓은 處方이다. 生薑을 爲君한 것은 性質이 辛溫하면서 陽部位의 寒邪를 驅逐하는 同時에 肺氣를 舒伸하면서 脾胃의 鬱結을 풀어주는 힘을 利用하려는 것이다. 嘔吐 痞滿 水結胸 怔忡 喘咳 等證은 于先 陽部位에 寒邪가 鬱結되므로 脾胃를 壓迫하기 때문인즉, 먼저 이것을 풀지 않으면 脾胃의 鬱結이 풀릴 수 있는 通路가 막혀서 升發할 수 없는 까닭이다.

桂枝湯：桂枝 白芍藥 甘草를 中心으로 하고, 白朮 陳皮로 脾胃를 돕고 升陽燥濕하면서 去濁 順氣하고, 生薑의 逐邪舒伸作用 合 榮衛의 調和를 이루면 人體는 平和하게 되며 生薑이 半夏를 얻음으로써 內外調和의 雙璧을 이루게 된다. 雜證이 저절로 풀리게 된다.

香砂養胃湯：人蔘 白朮 白芍藥 甘草灸 半夏 香附子 陳皮 乾薑 山查 砂仁 白豆久 各 1錢, 薑 3片, 苴 2枚

少陰人의 內傷調理脾胃之劑이며 逐濁救急之藥으로서 銘心하여 記憶할 處方이다.

赤白何烏寬中湯：白何首烏 赤何首烏 良薑 乾薑 青皮 陳皮 香附子 益智仁 各 1錢, 苴 2枚  
腹痛에 又加 五靈脂 益智仁 各 1錢, 神效云이라.

### Ⅲ. 少陽人 脾受寒表寒病論

註 少陽人은 脾陽이 過多하고 腎陰이 不足한 體局을 타고 났다. 즉 脾腎의 陰이 不足하기 때문에 胃大腸의 陽氣가 過亢하게 上升한즉 膀胱表記를 따라 上升하던 脾陰은 背膂間에서 鬱하게 되므로 陰이 背部로 上升하여서 腹部로 下降하지 못하게 된다. 그런데 外寒이 機會를 타게 되면 脾陰과 合勢하여서 背膂之間에 엉키어서 脾受寒表寒證을 나타내게 되는바, 이것이 及其也는 大腸으로 內遁함으로써 亡陰證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大凡火는 本是 順納하면 人體에 充陽하게 되지만 逆行하게 되면 表寒證을 招來하게 하는 것이다.

發熱 惡寒 脈浮緊 身痛 不汗出而煩燥者는 卽 少陽人 脾受寒表寒病也니 當用荊防敗毒散이니라.

脈이 浮緊하면서 煩燥證이 있다는 말은 脾陰이 寒氣를 받으므로 火가 胸臆에 몰려들어갔다는 증거이다. 少陰人은 脾火가 弱하므로 이와 같은 煩燥證이 없다. 少陽人의 病이 手足掌心에서 땀이 나아만 풀리는 것은 少陽人은 脾大하므로 火가 過旺하여서 金火交易이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病이 생기게 되는 것이므로, 諸陽之末인 手足에서 땀이 난다는 것은 金火가 交易이 되기 始作한다는 말이므로 病이 自解하는 것이다. 手足은 木火의 會同處인바 木火가 生長을 停止하고 收險할 때에는 土에서 濕化作用이 일어나면서 金火가 交易되는 것이다. 그 象態가 바로 手足汗이다.

太陽人의 外邪에는 2, 3次 發汗하여야 풀리는 것이 있는바, 이것은 外感이 2,3次式 連續 發病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少陽人의 頭痛

項強 寒熱 往來 耳聾 胸脇滿의 尤甚之病이 本是 그러한 것인바, 이것은 表邪가 深結하였기 때문이므로 3次 發汗 後에라야 풀리는 것이 있다. 初痛 再痛 三痛을 區別할 것 없이 荊防敗毒散이나 荊防導赤散이나 荊防瀉白散을 選用하여야 하며 病解 後에도 10餘 貼을 더 써야 病이 없을 程度로 完快하게 되는 것이다.

少陽人의 外邪가 數三次 發汗하여야만 풀리는 것이 있는 것은 少陽人은 陽盛陰虛하므로 火降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陰이 背脊之間에 凝滯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그것이 外邪와 合勢하여 생기는 것인즉, 少陰人의 裡寒의 凝滯 때문에 榮衛가 不行하는 틈을 타서 感染되는 外邪와는 差別이 있다.

少陰人은 表寒을 풀고 正氣만 調節해 놓으면 外邪는 는 거의 스스로 自解할 수 있지만, 少陽人은 비록 裡火를 下降시킨다고 할지라도 膈腎之間에서 以陰得陰한 陰邪는 決코 容易하게 驅逐해 낼 수는 없는 것이다.

結胸病은 膈內가 拒痛하여서 손을 가까이 할 수 없으며 燥渴과 譫語證이 있는 것은 結胸의 甚한 것이요, 水入卽吐하면서 心下가 痞堅하며 乾嘔短氣하는 것은 次證이다.

모든 結胸證은 藥이 口에 들어가면 번번이 吐하지만 오직 甘遂末을 口에 넣어서 침으로 넘기게 하고 다음에 濫水로 양치질하여 넘기게 한즉, 다섯번 吐하더니 6次에 吐하지 않고 泄瀉를 한 번 했다. 그 翌日에 또 물을 吐하므로 또 甘遂末을 썼던바, 大便을 快通하고 病이 納는 것을 보았다. 大抵 모든 結胸은 險證이 아닌 것이 없다. 먼저 甘遂를 쓰고 다음에 荊防導赤散을 써서 制壓하면 낫는다. 但 乾嘔短氣

證이 있더라도 藥을 吐하지 않으면 甘遂는 必要 없고, 荊防導赤散을 單用하되 茯苓 澤瀉 1錢式 加하여 連 3日 2, 3次 服用하면 낫는다.

甘遂는 表寒病水結證을 攻擊하는 藥이요, 石古는 裏熱病大便不通을 治療하는 藥이다.

表病에 甘遂를 쓰되 石古를 쓸 수 없고 裏病에 石古를 쓰되 甘遂를 쓸 수 없다. 揚手擲足引飲泄瀉證은 泄瀉를 하여도 石古를 써야 하고, 痺風膝寒大便不通證은 大便不通이라도 甘遂를 써야 하는 것이다. 揚手擲足引飲하면 泄瀉를 하여도 裏熱證이요, 痺風膝寒이 있으면 大便不通이 있어도 表寒證이 있기 때문이다.

少陽人이 身熱頭痛證이 있으면 猪苓車前子湯이나 荊防瀉白散을 써야 하고, 身寒 腹痛 泄瀉가 있으면 荊防地黃湯을 써야 한다.

少陽人이 갑자기 吐하면 반드시 寄證이 생길려는 徵兆이다. 먼저 荊防敗毒散을 써서 動靜을 觀望하라. 萬一 身熱 頭痛 泄瀉를 하면 石古劑를 쓸 것이요(熱이 肌肉之間에 있기 때문), 身寒 腹痛 泄瀉를 하면 黃連 苦參을 써야 한다(熱이 속에 鬱하고 있기 때문).

少陰人은 元來 冷氣가 勝한 體質인즉 少陰人의 頭痛은 冷氣가 上亢함으로써 일어나는 것이요, 少陽人은 元來 熱氣가 勝한즉 腹痛은 그 熱이 속에 悶쳐서 생기는 것이다.

“頭無冷痛 腹無熱痛”이란 古人의 말이 거짓이다. “汗多亡陽 下多亡陰”의 古語는 맞다. 왜냐하면 少陰人이 비록 冷勝하지만 陰盛隔陽이 되어서 敗陽이 外循하게 되면 煩熱汗出하게 되므로 亡陽證이 생기게 되고, 少陽人이 熱勝하지만 陽盛隔陰하여서 敗陰이 內循하게 되면 그 寒이 腸을 壓迫하면서 泄瀉하게 되는 것인즉



이것이 亡陰이다. 亡陽亡陰은 藥을 안 써도 죽고 急治하지 않아도 죽게 된다(急治하라는 말).

少陰人은 陰이 盛한즉 陽은 勢不足하여서 表裏로 몰려다니게 된다. 陽은 原則적으로 上升하면서 自己의 實力을 기르기 爲하여서 腎 속에 들어가서 養陽하는 것임에도 不拘하고 少陰人은 脾小하므로 自己의 陽을 升降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陽이 表面으로 逃亡하게 되는 것이니 이것이 바로 敗陽이다. 이런 敗陽이 邪熱과 合勢하면서 煩熱汗出證을 나타내는 바 그것이 亡陽證이다. 少陽人은 陽이 盛한즉 陰은 勢不足하여서 表裏兩面에서 陽을 包圍하여 가지고 升降하지 못하게 된다. 陰은 原則적으로 陽을 包圍하여가지고 升降하여야 하는 것임에도 不拘하고, 少陽人은 腎小하기 때문에 自己의 陰을 升降시킬 수가 없으므로 背脊部에 뭉쳐있게 되는 바, 이것이 敗陰이다. 그러한 敗陰은 邪寒과 合勢하게 되면 背脊에서 脾胃를 타고 入腹 逃走하면서 下降하게 되는 것인즉, 이것이 바로 亡陰證이다.

여기에서 陰陽이 升降하지 못한다고 한 것은 陽은 腹에서 上升하였다가 背로 下降하고, 陰은 腹으로 下降하였다가 다시 背로 上升하는 交流運動을 하는 것을 말한다.

亡陽이란 것은 陽이 上升하지 못하고 도리어 下降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요, 亡陰이란 것은 陰이 下降하지 못하고 도리어 上升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陰이 盛하여서 위에서 陽을 格在하게 한즉 眞陽之氣가 陰의 抑壓을 받기 때문에 胸膈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大腸에 빠져서 太陽膀胱經을 타고 外循하기 때문에 背表에서 煩熱이 나면서

汗自出하게 되는 바, 이것은 內氷外炭之邪陽인 즉 그것은 陽이 亡하려는 徵兆이다.

陽이 盛하여서 陰이 밑에 格在하게 된즉 陰이 陽 때문에 壅塞하게 됨으로 膀胱으로 下降하지 못하고 背脊로 上逆하였다가 內部的 膈膜으로 逃亡하게 되면서 泄下하게 되는 것인즉, 이것이 內炭外氷之邪陰인즉 陰이 亡하려는 徵兆이다.

少陽人의 病이 나오려는 땀은 人中에 先汗하는데 한 번 發汗하게 되면 胸膈에 땀이 活氣 있게 나면서 시원해지나, 亡陽症이 되려는 땀은 人中에 땀이 시원하게 나지 못하고 屢次 發汗하여도 胸膈이 갑갑하면서 氣分이 가라진다.

少陽人의 病이 나오려는 泄瀉는 먼저 手足掌心에 땀이 나고 한 번 泄하면 表氣가 明朗하여지면서 氣分이 爽快해지나, 亡陰證이 되려는 泄瀉는 手足掌心에 땀이 없으면서 屢次 泄瀉하여도 寒氣가 들면서 氣分이 흐려지는 것이다.

少陰人의 胃家實病과 少陽人의 結胸病은 正氣와 邪氣가 서로 對敵할 만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므로 오랜 後에 危證이 나타나지만, 少陰人의 亡陽病과 少陽人의 亡陰病은 正邪가 相敵할 만한 힘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初證부터 險證이 되어 계속하여서 危症이 되는 것이다(3日 以內에 治療하여야 한다).

少陰人의 胃家實病과 少陽人의 結胸病은 正邪가 相持日久할 수 있다고 한 것은 少陰人의 胃家實病은 鬱狂證이 傳經하여서 이루어진 것이고, 少陽人의 結胸病은 少陽病이 傳經入裏한 것인데, 이것들은 모두 正氣가 弱하기 때문이 아니고 正邪가 相持日久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少陰人의 亡陽證과 少陽人의 亡陰證은 모두 正氣 自體가 弱하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인즉, 이것은 正邪 間에 힘의 差가 너무 크므로 正邪相持日久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少陰人 胃家實病과 少陽人 結胸病은 正邪陰陽이 相敵而相格이라고 했고, 少陰人 亡陽證과 少陽人 亡陰證은 正邪陰陽이 不相敵而相格이라고 했던 것이다.

少陽人의 表病에 頭痛證이 있는 것은 火旺之力이 上焦에 偏치는 까닭이요(脾大하므로), 裏病에 便秘證이 있는 것은 火旺之根이 下焦에 있기 때문이다(腎小하므로). 즉 表病은 火上行而包越하지 못하고 裏病은 火陷下而發越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인즉, 이것은 四象如何를 不問하고 同一한 法則이 適用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病은 寒熱과 陰陽의 淺深만 잘 살피게 되면 這間의 消息은 저절로 알 수 있을 것이다.

#### IV. 少陽人 胃受熱裏熱病論

註 少陽人은 脾火가 過旺한 것이 特徵이다. 그러므로 交易作用에 있어서 火變爲金하기가 가장 어렵다. 胃는 이러한 脾의 腑인즉 항상 脾의 影響 下에서 움직이게 되는바, 少陽人의 胃는 이와 같은 條件 때문에 金水가 氣運을 제대로 行해 낼 수가 없으므로 여기에서 熱火作用이 強化하게 되어서 少陽人의 胃受熱病을 만들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脾腎之陰이 不足한 것이 少陽人인즉 裏熱의 過亢을 牽制할 수가 없으므로 여기에서 모든 陰虛裏熱證이 生하게 되는 것이다.

脈微弱而惡寒發熱하면서 自汗하는 모습이 마치 少陰人의 亡陽證과 같은 것이 少陽病에 있는바, 이것을 亡陽證으로 誤認하면 반드시 1,2 貼藥이 殺人하게 된다.

此證에 大便이 不過一晝夜而通者는 當用荊防瀉白散이요(大便을 每日 보면), 大便이 過一晝夜而不通者는 當用地黃白虎湯이니라(1일에 한 번도 못보면).

陽明證이라고 하는 것은 發熱만 있고 惡寒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요, 小便不利와 大便秘燥證이 兼하여 있으면 반드시 地黃白虎湯을 써야 한다.

少陽人의 裏熱病에는 地黃白虎湯이 聖藥이나, 大便의 通·不通을 살펴서 大便이 一晝夜以上 不通하면 쓸 수 있고, 二晝夜 不通하면 반드시 써야 한다. 少陽人이 大便을 一晝夜 不通하면 腎熱이 이미 凝結된 것이요, 二晝夜不通하면 熱이 重한 것이요, 三晝夜 不通하면 危險한 즉, 二晝夜 前에 반드시 쓰고 三晝夜의 危險之地에 이르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萬若 謔語證이 便秘를 兼하면 一晝夜를 지나서는 안 된다.

少陽人이 胃가 熱을 받은즉 大便이 燥結되고, 脾가 寒을 받은즉 泄瀉하게 되는 것이다. 亡陰證 泄瀉는 2,3일에 大便이 秘訣되는 것인즉 一晝夜를 經過하면 清陰이 벌써 없어져서 危境에 빠지게 되고, 胃熱證으로 三晝夜 동안 大便 不通이 되고 그 위에 汗出하게 된즉 清陽이 다 하여서 危境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少陽人의 表證에 頭痛證이 있으면 누구든지 알 수 있는 表病 初證이지만 引飲하면서 小便이 赤澁한즉 病은 벌써 두려운 것이요, 泄瀉하

면서 揚手擲足하게 되면 大畏證이다.

少陽人의 裏病에 大便이 一晝夜 以上 不通한 즉, 이것은 가장 알기 쉬운 裏病 初證이지만 三晝夜 大便不通證이 있으면 危險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腦疽 背癰 脣腫 纏喉風 咽喉 等病은 受病할 때부터 이미 危險한 證이고, 陽毒 發斑 流注 丹毒 黃疽과 같은 病은 受病할 때부터 이미 險證이고, 面目鼻口牙齒의 病은 成病할 때에 重證이다.

少陽人病에 頭痛이 있으면 荊防敗毒散을 쓰고, 裏病에 大便이 一晝夜 不通하는 證이 있으면 白虎湯을 써야 한다.

消渴者는 胃局清陽과 大腸局清陽이 上升하지 못하기 때문에 三消가 된다.

清陽이 上升하지 못하면 金火交易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말이다. 胃爲火大腸爲水인즉 清陽이란 이것들이 지닌 바의 純粹한 陽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이 快升하면 水火가 잘 交易되기 때문에 胸中에서 邪火가 沸騰하지 못하므로 消渴이 생길 수가 없는 것이다.

東武는 心境을 寬濶하게 하라고 한 것인바 이는 鬱火를 順其性而升發하게 하려는 것이요, 膠少하게 하지 말라고 한 것은 眞火가 逆其性 涸渴하는 것을 防止하려는 데 目的이 있다. 病의 治療나 修養도 위에서 말한 바의 水火의 交流를 잘 하게 하려는 데에 目的을 둔 것이다. 知病理而用藥하는 方法이나 濶心理而靜心하는 手段은 結局 邪火를 除去하면서 清陽을 養함으로써 水火交易의 基盤을 바로잡으려는 데 目的이 있는 것이다.

平心靜慮하게 되면 上升之陽이 輕清하여서 頭面과 四肢에 充足하게 될것인즉, 이것이 바로

元氣라고 하는 것이다. 清陽이란 것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요, 勞心焦思하게 되면 陽氣가 上升하지 못하고 腎·大腸部位까지 下陷하여서 重獨하게 됨으로써 頭面과 四肢에 鬱熱하게 되는 바, 이것이 바로 火氣라고 하는 것인즉 그것은 邪이므로(假陽) 도리어 眞陽을 消耗하게 된다.

上消와 中消는 속에서 胃 大腸의 升陽之氣가 虛損된 까닭이지만 表陰降氣(脾腎의 降陰之氣)는 아직 完壯하지만 鬱熱때문에 清陽이 上升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能히 鞭어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萬一 陰虛하여서 午後發熱而渴하며 背寒而嘔하는 것은 脾腎之陰이 虛함으로써 裏陽과 表陰이 俱虛하게 된 것인즉, 이것은 尤直한 險證이므로 腎大腸의 清陽이 消耗된 下消와 비슷한 것이다. 비록 그렇다고 할지라도 安心靜慮하면서 服藥하면 十人 中 六·七人은 살 수 있을 것이요, 萬一 攝生을 게으르게 하면 百人 中 百人이 모두 죽게 된다.

此證에는 獨活地黃湯과 十二味地黃湯이 適方이다.

### 泛論

中風은 受病이 太重하므로 治法을 期必할 수가 없지만, 吐血은 中風보다 受病이 輕하므로 期必코 治療할 수 있다. 中風과 吐血은 調養에 主點을 두고 服藥은 다음으로 取拔할 것이지만, 嘔吐 腹痛 食滯 痞滿은 服藥하면서 調養하면 쉽게 낫는다. 中風 吐血에는 宜用獨活地黃湯이요, 吐血에는 宜用 十二味地黃湯이니라.

浮腫病은 急히 다스리면 살 수 있고, 그렇지 못하면 죽는다. 浮腫 初證에는 木通大安湯이나 荊防地黃湯에 加 木通하여 1日 2回式 6, 7日間

服用하면 풀린다. 풀린 後 100日間 荊防地黃湯에 木通 2,3錢式을 加하여 每日 2,3貼 服用시켜 小便을 淸케 하면서 再發 防止를 해야 한다. 萬一 小便이 붉게 되면 浮腫이 再發된다.

少陽人의 鼓脹病이 少陰人의 臟結病과 같아서 5, 6, 7, 8個月 或은 一週年에 죽는다. 少陰人의 臟結은 表陽溫氣는 거의 끊어지려고 하지만 裏陰溫氣는 强하고, 少陽人의 鼓脹은 裏陽淸氣는 거의 끊어지려고 하나 表陰淸氣는 아직 완강하기 때문에 오랜 後에 죽는 것이다.

痢疾과 結胸을 比較한즉 痢疾은 順病인바 痢疾의 重證은 浮腫과 가깝고, 嘔吐와 腹痛을 比較한즉 嘔吐는 逆證인바 嘔吐의 惡證은 中風과 멀지 않다.

少陽人의 痢疾에는 黃連淸陽湯을 써야 한다.

荊防敗毒散 : 羌活 獨活 柴胡 前胡 荊芥 防風 白茯苓 生地黃 地骨皮 車前子 各 1錢, 右方은 治 頭痛이나 寒熱往來者 宜用하다.

東武는 于先 瀉心火淸肺金함으로써 上逆하는 心脾之血을 平하게 하면서 解鬱火하는 生地로서 胸膈之火를 平定하게 하고, 또 肺肝의 風熱을 膀胱으로 滲洩시키면서 固精益陰하는 車前子로서 火를 下洩하게 하고, 肺中の 伏火와 肝腎의 虛熱과 內外 潮熱을 물리치는 地骨皮로서 補陰降火하게 한 것이다. 그런 즉 龔信的 敗毒散은 單純한 開鬱解毒之劑였는데, 東武에 依해서 解毒補陰之劑로 變貌하게 되었고 時期解外之劑에서 內傷解鬱之劑로 登場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다.

新定荊防敗毒散이 心煩 嘔吐 吐血 往來寒熱 瘧疾 等を 治療할 수 있는 藥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 것은 眞實로 少陽人 體局의 缺點인

水虧“火旺作用을 도와서 陽升陰降할 수 있게 하면 모든 邪가 스스로 물러간다는 것을 밝혀 놓은 것이다.

荊防導赤散 : 生地黃 3錢, 木通 2錢, 玄蔘 瓜 藹仁 各 1錢 5分, 前胡 羌活 獨活 荊芥 防風 各 1錢, 治 頭痛而胸膈煩熱者 宜用.

이 處方은 荊防敗毒散과 表裏關係인바 前者는 病根이 아직 表쪽에 기울어져있는 것을 目標로 한 것이요 後者는 邪가 裏쪽에 기울어져서 胸膈煩滿證을 나타낼 程度에 이른 것을 目標로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治療方法에 있어서도 前者는 解表升陽하는 데에 힘을 기울였지만, 後者는 和裏升陽에 더욱 注力하였던 것이다. 荊防敗毒散이 生地黃 車前子 地骨皮를 並用하면서 補陰升陽散火하였던 것과 比較하여 보면, 이 處方이 和裏補陰瀉火에 어떻게 主力하는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또한 玄蔘으로 相火를 맑게 하고 陰을 補하며 瓜藹仁으로 胸膈之火를 瀉함으로써 煩滿證을 除去하게 한즉, 비로소 少陽人으로 하여금 補陰瀉陽할 수 있게 하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火를 下降시키면서 淸之滌之하였지만, 外部背脊之間에 鬱結한 邪는 羌獨으로 下焦腎膀胱의 邪를 驅逐하면서 升陽散火하게 하고, 荊防으로서 上焦胸膈과 頭目에 있는 火를 發散하게 한즉, 이것이 上下分消其熱하는 方法이다. 荊防敗毒散과 荊防導赤散의 製方立法之妙理와 그의 運用方法을 再三比較檢討함으로써 表裏和解法을 銘心할 것이다.

荊防瀉白散 : 生地黃 3錢, 茯苓 澤瀉 各 2錢, 石古 知母 羌活 獨活 荊芥 防風 各 1錢, 治 頭痛이나 膀胱燥者 宜用이라.

이 處方은 火旺灼金함으로써 肺陰이 燒盡되기 때문에 膀胱이 孤立하여서 水渴하려는 것을 治療하려는 데 目的을 둔 處方이다.

荊防敗毒散은 治表升陽補陰하는 藥이요, 荊防導赤散은 補陰瀉火하면서 調治胸膈하는 藥이요, 荊防瀉白散은 補陰瀉肺함으로써 腎 膀胱을 孤立시키지 않도록 하려는 藥이다. 이 三方은 少陽人 脾受寒表寒病의 姊妹方이며 荊防地黃湯은 補陰劑이다.

十二味地黃湯의 覆盆은 甲土上升之象을 取한 것이고, 枸杞子是 己土下降之象을 取한 것이다. 少陽人의 火鬱은 脾火太過이니 玄蔘 地骨皮 등으로 間接 除去條件하고, 荊防으로 脾肺經의 邪火를 發散시킨다. 少陽人은 脾腎之陰이 不足한 데서 緣由된 바 用意周到한 名方이다. 少陽人에게 陰氣猶恃完壯하고 陽氣가 幾絶하려고 할 때 必要한 것이며, 그렇지 않을 때는 六味地黃湯·獨活地黃湯이 낫다.

地黃白虎湯·陽毒白虎湯·涼膈散火湯은 上焦 風熱之諸疾에 如何한 境遇를 莫論하고 無不神效한 名方이다.

大低 陰氣가 下降하지 못하면 陽氣가 上升하지 못하고, 陽氣가 上升하지 못하면 陰이 孤立되어서 火坑 속에 빠지게 될 것이다. 陰은 自己의 이와 같은 危急을 冒免하기 爲하여서는 飲水로써 이것을 充足시켜야 하는 것이다. 이 狀態를 가리켜서 消渴이라고 한다.

人體에서 陰陽이 循環하는 作用을 보면 大腸局의 陽氣와 胃局의 陽氣는 腹胸으로 上升하게 되고, 脾局의 陰氣와 腎局의 陰氣는 上升之陽을 包圍하면서 腹部로 다시 下降하게 되는 것이다 (小腸의 陽氣와 胃脘의 陽氣가 上升할 때에는

肝局의 陰氣와 肺局의 陰氣도 陽을 包圍하면서 腹部로 下降할 것은 勿論이다). 肺脾肝腎의 陰이 下降하게 되면 다시 陽化하면서 上升하였다가 드디어 土化하여가지고 다시 上升之陽을 包圍하면서 下降하는 作用을 反覆하게 된다. 背部는 陰을 陽化하면서 上升(陰이)하는 길이고, 腹部는 陽을 陰化하면서 下降하는 길이다.

內經에서는 陽氣는 背部로 上升하고 陰氣는 腹部로 下降한다고 論하였다.

內經에서 論한 바는 觀念的인 狀態를 말한 것이고 東武가 論한 바는 實際的인 現像을 論한 것이다. 背部로 陽氣가 上升한다는 것은 陰氣上升의 裏面을 論하는 것이요 腹部에서 陰氣가 下降한다는 것은 陽氣下降의 表面을 말한 것이다. 東武가 말한 바는 人體에서 運行하는 陰陽升降의 實像은 內經과 反對된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東武는 水穀之氣에 依해서 養陰陽 하여야 하는 人間의 生理作用의 實像을 그대로 밝혀 놓은 것이고, 內經은 宇宙運行에서 일어나는 六氣가 어떻게 人體에서 循環하는가 하는 것을 哲學的 觀念으로 說明한 것이다. 얼른 보면 二者間에 差異가 있는 것 같지만, 實은 하나는 臟腑의 運動을 中心으로 論한 것이고, 하나는 陰陽의 變化를 觀念的으로 說明했다는 點이다.

忍冬藤地骨皮湯：忍冬 4錢, 山茱萸 地骨皮 各 2錢, 黃連 黃柏 玄蔘 苦蔘 生地黃 知母 山梔子 枸杞子 覆盆子 荊芥 防風 金銀花 各 1錢

이 處方의 立方目的은 胃局의 陽氣(邪陽)가 過亢하여서 脾陰이 包陽而下降하지 못하므로 陽亢而陰下降하게 되어서 中消善飢證을 나타내는 것을 治療하려는 데 目的을 둔 것이다. 이

藥은 非但 消渴 뿐만 아니라 大人 小兒를 莫論 하고 善食而飢瘦하는 데에 適用됨은 勿論, 少陽人 以外の 다른 體質에 對한 如斯한 病에도 原理를 應用하여 立方할 수 있는 基本을 提示한 것이다. 火熱을 蕩滌하는 것보다 먼저 眞陰을 補하는 것이 少陽人의 活命之道인 것이다. 生地와 知母와 枸杞子를 써서 眞陰을 補하면서 肝 肺 腎 三經之火를 瀉하게 하고, 梔子로서 心肺之鬱火를 풀어주고, 覆盆子를 써서 幾絶之陽을 接續시키고, 金銀花로서 表決之鬱을 解散하게 하면 陰陽의 升降之路는 스스로 열릴 것이다.

木通大安湯 : 木通 生地黃 各 5錢, 赤茯苓 2錢, 澤瀉 車前子 黃連 羌活 防風 荊芥 各 1錢, 治 浮腫者 宜用이니 險病에 始終用藥하여 當至 百餘貼하라.

浮腫은 津血이 變하여 물이 됨으로써 이루어지는 病인바 두가지가 있다. 脾胃가 冷하기 때문에 肌肉의 活動溫度가 낮게 되어서 肌肉과 筋膜之間에 있는 津血이 寒化爲水하여서 浮腫이 되는 寒性浮腫, 少陰人의 浮腫이다. 또 內熱이 甚하여서 陰이 弱화된즉 腹部에서는 陽이 過亢하게 되고 背部에서는 陰弱而溜滯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陰陽이 서로 뺏쳐서 流通路가 막히게 되는 것인즉, 이때의 眞陽은 鬱하여서 邪熱이 되고 眞陰은 變質하여서 邪濕이 된다. 이렇게 되면 人體에서는 水火가 相激하면서 熱化爲水하게 되는바 水火가 順動順靜하지 못하기 때문에 火化爲土하지 못하고 熱化爲濕(즉 熱反爲水)함으로써 浮腫이 된다. 이것은 少陽人에게 일어나는 浮腫之屬이다.

黃連清腸湯 : 生地黃 4錢, 木通 茯苓 澤瀉 各

2錢, 猪苓 車前子 黃連 羌活 防風 各 1錢, 治 痢疾者 去 木通 2錢, 加 荊芥 1錢, 淋疾者 宜用.

痢疾은 大概 下焦에서 氣血이 鬱滯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인바, 少陰人의 痢疾은 脾陽이 不足하고 腎陰이 太過하기 때문에 胃局陽氣가 下陷而不升하게 되므로 下焦에 血凝氣滯하게 되어서 생기는 病이다. 少陽人의 痢疾은 腎陰이 不足하고 脾陽이 太過하여서 脾局陰氣가 下降할 수 없기 때문에 中·上焦에서 氣凝血滯하는 病이고 太陰人의 痢疾은 肺陽이 不足하고 肝陰이 太過하여서 小腸에 血凝氣滯하게 됨으로써 中下焦之氣가 鬱하게 되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 V. 太陰人 胃脘受寒表寒病論

註 太陰人은 肺小한즉 그의 腑인 胃脘에 陽의 上升之力이 不足할 것은 勿論이다. 胃脘에 陽이 上升하지 못한즉 肺中의 陽이 不足하게 되므로 呼出之力이 不足하게 될 것이고, 肺의 呼出力이 不足한즉 衛氣가 發할 수 있는 根源이 弱화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 小腸의 陽은 胃脘의 陽으로 發展하여야 하는 것인바, 太陰人은 肝金이 大하므로 그의 腑陽이 마음대로 上升할 수 없게 되어서 드디어 胃脘의 呼力이 不足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太陰人이 萬一 些少한 寒邪에라도 感하게 되면 胃脘受寒表寒病에 걸리게 되는 것인즉, 이것을 治療하는 方法은 肺胃脘의 鬱結之邪를 發散시키면서 潤肺 清心하여야만 陽氣는 上升할 것이고 肺胃脘의 寒邪의 包圍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人間의 生命을 創造하는 皮를 榮血이라고 하

고, 그것을 保護하는 기운을 衛氣라고 한다. 人間의 生命을 創造한다는 말은 後天的 創造... 先天的으로 받은 生命이 耗散되지 않도록 保護 育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즉, 이것이 바로 榮血의 作用이다. 榮血은 心에서 이루어져서 腎에서 發하여가지고 上升하면서 外動하다가 肺에 이르게 되면 다시 下降하면서 內靜作用으로 轉換하는 것이다. 榮血은 이와 같이 出入 反復하면서 運動하는 것인데, 이때에 萬一 寒邪가 表部に 맞으면 表部에서 動하던 榮血이 凝結됨으로써 그의 運動이 麻痺狀態에 빠지게 되는 것이므로 張仲景이 「太陽傷寒은 榮血不利」라고 註한 것이다. 榮血을 保護하는 것이 衛氣인바, 衛氣는 肺에서 나와서 升降하면서 護表之源을 만드는 것인바, 萬一 衛氣의 出發之部位인 胃脘이 邪에 맞으면 衛氣가 不行하게 된다.

太陰人은 金大木小하므로 그러한 體質의 傷寒을 다스리려면 麻黃으로 表散去實하면서 開通榮衛之路하여야 하고, 少陰人의 傷寒은 調和 榮衛함으로써 榮衛之源을 保護하여야 한다. 太陰人 表病傷寒에 麻黃發表湯이라. 太陰人의 太陽證은 胃脘이 受寒함으로써 榮血이 凝滯하게 되고 衛氣가 不行하는 實證일 뿐이고, 少陰人의 境遇처럼 榮血의 本源인 心脾와 衛氣의 所發處인 肺肝의 寒邪 때문에 受傷한 것은 아니다. 그런 즉 心榮肺衛의 本源을 保養하는 藥인 桂枝 甘草는 太陰人의 境遇에는 도리어 表寒裏熱(桂枝 甘草는 心肝脾肺를 補하므로)을 相持하게 할 뿐이고, 表實之邪를 驅逐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이다.

太陰人이 傷寒表證에서 4, 5日間 惡寒하다가 發熱하는 것은 重證인바 此證發熱이 처음에는

髮際와 額上에서 땀이 나기 始作하고, 數日 後에 다시 發熱할 때에는 眉稜까지 通汗하고 또 數日 後에 發熱할 때에는 額上에까지 通汗하고 또 數日 後에 發熱할 때에는 唇頤에까지 通汗하고 또 數日 後에 發熱할 때에는 胸臆에까지 痛汗하고서야 病이 낮게 되는 것이다. 額上에서 數次 發汗한 後에 眉稜에 達하고, 眉稜에서 數次 發汗한 後에 觀上에 達하고, 觀上에서 數次 發汗한 後에 唇頤에 達하고, 唇頤之汗이 한번 發한 後에 直達胸臆하게 되면 病이 快癒하게 되는 것이다.

此證은 始初부터 끝까지 20日이나 걸리는 바 그 동안에 寒厥을 6, 7次 하고서야 病이 풀리게 되므로 이 證을 世俗에서 長感病이라고 한다.

太陰人이 寒厥 6, 7日 되어도 發熱하지 않고 汗出도 없으면 死證이다. 寒厥 2, 3日 後에 發熱汗出하는 것은 輕證이고, 寒厥 4, 5日에 發熱하고 額上에서 微汗이 나게 되면 長感病이며 重證이다. 이 病은 太陰人이 勞心焦思함으로써 胃脘의 陽氣가 衰弱하게 되고 體表의 陽氣 즉 衛氣가 發하지 못함으로써 外表之寒邪를 막아 낼 수가 없으므로 밖에서 包圍하려 하는 寒邪와 體內에서 上升하려는 胃脘之正氣와 相爭하는 形勢가 太陰人의 長感病인바, 이러한 形勢下에서는 客勝主弱하게 되므로 마치 孤軍이 垓心(亥木의 核 속에서 있지 못하고 垓 속에 있은즉, 즉 戊 속에 있는 것을 意味하는 것이므로 噴出이 容易하지 않다. 宇宙變化의 原理五行論 參照)에서 受困하고 있는 것인즉 全軍이 거의 覆沒할 지경에 이른 것이다. 先鋒隊가 當幸跳出하여서 一面을 터트리게 되면 겨우 出口를 열어놓은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 後

軍이 垓 속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즉, 屢次 歷戰한 後에라야 全軍이 放出할 것인즉 眞實로 悽慘한 象態라고 할 것인바, 이것이 바로 太陰人의 長感病이 正邪相戰하는 象態이다.

額上에서 汗出하는 것은 先鋒隊가 包圍陳을 터트리고 뛰어나오는 象이요, 眉稜에서 汗出하는 것은 前軍 全隊가 前陣을 무찌르는 象態인 즉 이것은 前軍 氣勢가 勇敢한 것을 意味하는 것이요, 額上에서 發汗하는 것은 中軍 半隊가 安心하고 一線으로 나아가는 象이다. 이 病에서 眉稜汗은 危急을 免한 증거이고, 觀上에서까지 通汗하게 되면 絶對로 危險이 없는 것이다. 太陰人은 汗滴이 分명한 汗이 나왔다가 發熱이 稍久한 後에 還入하면 正陽이 强하여서 寒邪를 退去할 수 있다는 증거로서 나오는 것인즉 快汗이다. 萬一 微粒象態이거나 번지르르한 汗은 正氣가 弱하고 邪氣가 反强한 증거인즉 快汗이 될 수 없다.

太陰人之汗은 頭腦 以下 背部後面에 全部 汗이 있다고 할지라도 面部 髮際 以下에 汗이 없으면 凶證이 되는 것은 太陰人은 肺少하므로 肺의 腑인 胃脘의 呼出之氣가 不足하기 때문에 發汗하기 어려운 것이다. 비록 背部에는 陰升之路가 열렸다고 하더라도 胸部의 升陽之路가 열리지 못한즉, 陽升陰降할 수 없으므로 外邪가 풀릴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髮際面部에 不汗者는 凶證이라고 한 것이다.

全部皆有汗而耳門左右에 不汗者는 死證이라고 한 것은 太陰人이 肝大한 즉 背表之陰은 上升하기 어렵고, 胃脘의 陽이 이것을 받들지 못하므로 結局 背表之陰이 陽化하지 못하기 때문에 發汗(耳門左右에)하지 못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生路之陽이 囚閉되므로 人間生命은 杜絶할 수밖에 道理가 없다.

이와 같은 先天的 體質을 所有한 太陰人은 恒常 外邪가 이와 같은 體質의 缺點과 衝突하게 되므로 少陽膽經의 門戶인 耳門에서 氣閉하게 되는 것이다. 耳門左右에서 汗이 안 난다는 말은 生命力이 杜絶되었다는 말이고, 汗이 난다는 말은 生命之路가 열린다는 말이다. 太陰人의 外感病은 耳門左右之汗의 有無로서 生死의 第一契機가 되고, 面部髮際之汗의 有無로서 第二契機가 되는 것이다. 此證은 汗의 進退로서 輕重을 決定할 것이고, 寒厥의 多少로서 輕重을 決定할 것이 아니다.

太陰人病이 萬一 寒厥이 4日 繼續한 後에도 汗이 없으면 重證이고, 5日이 되어도 汗이 안 나면 險證인즉 마땅히 熊膽散이나 惑 寒多熱少湯에 蟾蜍 5, 6, 7個를 加하여 쓰되, 大便이 滑하면 乾栗 薏苡仁 등을 쓰고 大便이 燥하면 葛根 大黃 等屬을 써야 한다. 萬若 額上이나 眉稜上에 汗이 있으면 自癒하기를 기다렸다가 病이 스스로 나은 後에 用藥條理하여야 한다. 萬若 그렇게 하지 않으면 後證이 復發할 念慮가 있다. 少陰人은 胃陽之上升力이 不及하기 때문이고, 太陰人은 胃脘之陽의 上升力이 不及하기 때문이다.

瘟疫의 病證은 그 사람의 素病을 알면 表裏 虛實에 맞추면 된다.

## VI. 太陰人 肝受熱裏熱病論

註 肝木의 金은 肺中の 木을 만들기 爲해서



必要한 것이다. 萬一 太陰人の 경우에 있어서처럼 肝金이 大한즉 그것은 바로 肝中の 火가 旺하다는 말이다. 이러한 肝은 木을 牽制하는 힘이 不足하므로 자칫하면 火化하기 쉬운 것이다. 그러므로 太陰人の 肝은 恒常 受熱하기 쉬운 立場에 놓이게 된다.

太陰人の 裏熱病은 肝의 受熱로서 始作하여서 肺의 燥로 轉換하게 되고, 及其也는 大便燥結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다.

朱肱이 말하기를 陽毒은 얼굴에 赤斑이 생하는바 斑紋은 錦紋과 같고 咽喉가 아프면서 膿血을 唾出하는 것인즉 葛根解肌湯과 黑奴丸을 써야한다. 陽毒과 傷寒壞病은 醫所不治之病이다. 그러나 病證에 있어서 精魄이 비록 已渴하더라도 心下에 아직 溫煖한 氣運만 있으면 입을 벌리고 墨奴丸을 灌入하면 復活할 수 있다.

李挺이 曰 微惡寒發熱證에는 葛根解肌湯을 쓰고, 目疼 鼻乾 潮汗 閉澁 滿渴 狂譫證이 俱有하면 調胃承氣湯을 써야한다. 目疼不眠證만 있으면 熱이 아직 表에 있다는 證據인즉 葛根解肌湯을 써야하고, 滿渴 狂譫證을 俱有하면 熱이 이미 入裏하였다는 證據인즉 調胃承氣湯을 써야 한다.

龔信 曰 陽明病은 目疼 鼻乾하면서 잠을 자지 못하는 病이니 葛根解肌湯을 써야 한다. 三陽病이 入深하면 陽毒으로 變하게 되는 것이니, 病證이 面赤 眼紅하면서 몸에 黃赤斑紋을 發하며 或 下利 黃赤하기도 하며 六脈이 洪大하게 되는 것인즉 마땅히 黑奴丸을 써야 한다.

太陰人病이 初發에 嘔逆 嘔吐하는 것은 表證인바, 이것은 胃脘之陽이 上升하려는 徵兆인즉 두려워할 必要가 없다.

太陰人 面色이 黃赤黑하면 燥證이 있는바 左手中指가 焦黑無力하게 되는데 熱多寒少湯에 古木 2錢, 大黃 1錢을 加하여 28貼을 쓴즉 大便이 始滑하였다가 1,2日 後에 다시 秘燥, 또 28첩을 썼더니 大便이 알맞게 滑하여지면서 面部斑瘡과 手力足力이 稍快有效하고, 다시 20貼을 쓰고서야 快差하였다.

太陰人이 肺小하여서 肝火를 包圍할 수 없으므로 肺金의 陰이 失潤하게 되어서 燥하게 된다. 이와 같은 燥는 陽明에 屈하므로 陽明의 燥가 極點을 이루는 申에서 燥의 바탕이 이루어지는 것이다(詳細는 宇宙變化의 原理 寅申相火論 參照). 東武가 燥熱 手指焦黑病이 中指에서 일어나는 것을 發見하였던 것이거니와 이것은 燥가 極點에 이른 것을 말한 것이다.

太陰人의 一般的 燥는 위에서 말한 內經所論으로 나타난다. 즉 太陰人이 皮膚가 거칠거나 手足爪甲이 上向하거나 하는 것은 모두 燥하기 때문인 것이다. 內經에서 말한 “諸澁枯澀難揭”은 모두 燥證의 發顯인바 甚하게 되면 乃終에 焦黑病으로 發展하는 것이다.

靈樞에 曰 二陽結을 胃之消니 飲一搜二면 死不治니라. 註曰 二陽結은 謂胃及大腸熱結也니라. 此病非少陽人 消渴也요, 太陰人 燥熱也니라. 此證에 不當用腎氣丸이요, 當用 熱多寒少湯에 加 古木 大黃이니라.

靈樞에 말한 바의 飲一搜二之證은 消病(消渴과는 다르다)이니, 이것은 二陽에 熱結이 된 것이므로 그 病이 甚하게 되면 津液과 물은 모두 燥化爲水하게 되는 것이니, 燥가 極하면 溫化爲涼하기 때문에 體內的 모든 物質은 물로 化하게 됨으로써 飲一搜二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

은 바로 太陰人의 燥熱證이 極化한 狀態를 말한 것이다. 仲景이 말한 바의 飲一斗搜二斗란 것은 燥하기 때문에 肺不能生水한 狀態인즉, 燥熱의 極化한 것과는(二陽之病) 다르므로 물이 靈樞所論처럼 많이 생기지 못하고 飲一斗搜一斗하게 되는 것이다. 卽 腎燥는 二陰之臟에 屬한 것인즉 二陽之腑에 比하면 燥化爲水之力이 不及할 것은 勿論이다.

靈樞에 말한 消證은 太陰人의 燥極證을 말하는 것이고, 仲景이 말한 바의 消渴은 少陽人의 消渴이 아니고 太陰人의 重燥證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東武는 腎氣丸을 쓸 것이 아니고 熱多寒少湯을 써야 한다고 하였다.

太陰人證에 有食後痞滿 腿脚無力病하니 宜用 拱辰黑元丹 鹿茸大補湯 太陰調胃湯 調胃升清湯 이니라.

太陰人 有腹脹浮腫病하니 當用 乾栗蟻螯湯이라. 此病極危險證而十病九死之病이니 雖用藥病癒라도 三年內 不再發然後方可論生 戒侈樂禁嗜慾하고 三年內에 宜恭敬心身이니 調養慎攝이 必在其人矣이니라.

凡太陰人의 勞心焦思하여 屢謀不成者 有久泄久痢하고 或 淋病 小便不利食後痞滿 腿膝無力病하니 皆浮腫之漸이라. 己爲重險病而此時에 已浮腫論而蕩滌欲火하여 恭敬其心하고 用藥治之可也니라.

太陰人은 勞心焦思하여 屢謀不成하면 肝火가 沸騰하여서 久泄久痢 淋病小便不利 食後痞滿 腿脚無力證이 생기게 되는 것인바, 모두 浮腫으로 向하는 단계에 不過한즉 벌써 重險한 病이다. 이미 浮腫에 못지않는 것으로 斷定하고 蕩滌欲火恭敬其心하면서 用藥하여야 完快할 수

있다.

太陰人의 中風은 肺木이 弱하고 肝金이 太過하기 때문에 金木이 抗爭하여서 일어나는 것이므로 手足을 挑動하여서(手足은 諸陽之末이므로) 肺의 呼出之氣를 增大시키면 肝金이 牽制를 當하여서 金木의 均衡을 얻게 되므로 風의 勢力을 잃게 되고, 少陽人의 中風은 腎水의 抱藏之力이 不足하고 脾火의 亢發之力이 太過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므로 撓動手足하거나 起坐한즉 陽勢가 鋒起하게 될 것이므로 大忌하고, 少陰人의 中風은 脾納之氣가 不足하고 腎臟之氣가 太過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인즉 病人을 抱坐하여서 土氣를 上升하게 하면 脾納之氣가 上升하게 되므로 濕化爲土하여서 動風之源을(卽 水剋火하여서 反生虛熱하면서 虛熱이 生風하면서 風源을) 막게 되므로 靜坐하는 것은 可하지만 萬一에 撓動兩肩하면 虛火가 亢發하여서 風勢가 益盛하게 되므로 大忌하는 것이다.

### 新定太陰人病 應用要藥

太陰調胃湯 : 薏苡仁 乾栗 各 3錢, 蘿蔔子 2錢, 五味子 麥門冬 石菖蒲 桔梗 麻黃 各 1錢

이 處方은 太陰人의 胃氣를 調和시켜서 食滯痞滿 泄瀉 等の 表寒證을 治療하는 處方이다. 太陰人이 萬一 肺金이 燥하면 그의 腑인 胃脘이 受寒하기 쉽고 胃脘이 受寒하게 되면 肝金과 胃脘之金이 相博하여서 肝火가 鬱하게 되므로 肝木之火가 邪火로 變하게 된다. 肝火가 妄動하게 되면 膽氣가 脾胃를 調節할 수 없게 되어서 食滯 痞滿이 생기게 되고, 胃脘의 寒性이 外寒과 相博하게 되면 大腸으로 傳導되어서 泄

瀉를 하게 되고, 따라서 表寒證이 일어나게 된다. 太陰人의 此等病證은 胃脘之氣를 上升케 함으로써 外寒이 물러가게 하고 外寒이 물러감으로써 肝火가 舒伸하게 된즉, 脾胃가 順하게 될것이므로 모든 病이 悉退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薏苡仁 乾栗으로써 爲君하여서 扶土(脾)抑木(肝)補腎하게 함으로써 受病之本源을 바로잡아 놓으려는 것이다.

葛根解肌湯：葛根 3錢, 黃芩 古本 各 1錢 5分, 桔梗 升麻 白芷 各 1錢

이 處方의 效用은 微惡寒發熱 目疼鼻乾 不眠하는 陽明表證과, 面赤斑 斑如錦紋하며 咽喉痛 唾膿血하는 陽毒 즉 陽明肌肉之間에 도사리고 있는 鬱熱이나, 또 體熱 腹滿 自利하는 熱勝入裏之病을 治療하려는 데 目的이 있다.

太陰人 裏熱은 肝火가 太過하고 反對로 肺木의 上升之氣가 不足한 것이 特徵이다. 肝火가 妄動하면 小腸을 通하여 胃 大腸 즉 陽明經의 金을 消燦하면서 陽明所過之地인 鼻目을 通하여 上升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目疼 鼻乾하게 되고 사람은 肝에 諸血이 歸藏됨으로써 잠들게 되는 것인바, 肝熱이 太過하여서 不能藏血하게 되므로 臥不安하게 되는 것이다. 微惡寒하는 것은 外感所受之寒만이 아니고 肝火가 陽明金을 剋할 때에 일어나는 金火相爭의 餘波이기도 하다. 肝火가 陽明肌肉之間에 들어가게 되면 그 熱이 肌肉之間에서 鬱하게 되므로 陽明經의 末端인 面部에 熱色인 赤氣가 나타나면서 온몸에는 斑紋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肌肉之間에 있는 熱은 皮毛之間으로 發散하기 어려우므로 肌肉之間을 거쳐서 上升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下降하여서 大腸으로 逃亡하게 되는

것인즉 腹滿自利證은 眞實로 이와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調胃升清湯 清心連子飲 麻黃定喘湯 麻黃定痛湯 熱多寒少湯 寒多熱少湯 葛根承氣湯 調理肺元湯 鹿茸大補湯 拱辰黑元丹 皂角大黃湯 葛根浮萍湯 乾栗蟻螬湯 乾栗樗根皮湯 苳薺散 熊膽散 石菖蒲遠志散 牛黃清心丸

## VII. 太陽人 外感腰脊病論 及內觸小腸病論

四象人의 臟腑受病 經緯를 보면 陰人은 大한 臟이 受熱하고 小한 腑가 寒을 받아서 受病하였다. 少陽人은 大한 臟인 脾가 寒을 받았고 그의 腑인 胃가 熱을 받아서 受病하였다.

少陽人의 경우는 왜 大한 臟인 脾가 受寒(陰人과는 反對로)하는가 하면 陽人은 陽이 過亢하기 때문에 火極似水하여서 도리어 受寒하게 되는 것이다. 陰人은 陰이 過多하므로 肝腎(陰)이 受熱하였다가도 다시 陰化할 수 있지만, 陽人은 本是 陰이 不足하기 때문에 陽部(脾)에서 金火가 交易되려고 할 때에 火極似水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少陽人이 陽不升陰不降하여서 背脊(陽部)에서 陰氣가 膈膜을 통하여 大腸으로 逃亡하면서 亡陰病을 일으키는 狀態인 것이다.

이와 같이 考察해 볼 때에 太陽人(陽人을 同一例로 본다면)은 肺受寒胃脘受熱病이 일어나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太陽人은 外感腰脊病과 內觸小腸病이 일어난다고 하였은즉 이것은 모두 熱病이다. 왜 太陽 少陽은 同一한

陽人임에도不拘하고 서로 다른가 하면, 太陽人은 少陽人보다도 陽亢之勢가 尤甚하므로 肺胃脘의 陰이 本性을 發할 만큼의 餘裕가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內外가 모두 以熱受病하게 되는 것이므로 東武가 다만 外感腰脊病과 內觸小腸病으로 區別하고 表裏寒熱을 區別하지 않았던 것이다.

太陽人은 肝小肺大한 體局을 타고 났은즉 少陽人의 基本陰(脾腎之陰)이 不足한 것과 比하여 보면 이것은 金木의 陰(肝肺之陰)이 不及한 것을 意味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體局은 陽多陰少라기보다도 오히려 全陽無陰狀態에 가까운 것이다. 肝의 附位인 腰脊이 陽性인 外邪를 받아들이기 쉬운 것은 勿論이고, 또 肝의 腑인 小腸이 그것을 받아들여서 內觸되기도 容易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太陽人은 內外之火가 相博되어서 僅少한 陰을 消燬하여 버리게 되므로 解休症이나 噎膈症과 같은 陽亢之病이 內外相隨하게 될것은 勿論이다.

靈樞에 말하기를 骨髓가 傷한즉 骨中之髓가 消燬하게 되므로 行痿하며 또 一身의 氣運이 모두 풀린 것같이 되어서 運動하지 못하게 되니 걸어다닐 수가 없게 된다.

太陽의 外感腰脊病은 戒深哀 遠嗔怒 修清淨 하여야 補肝 瀉肺 生陰하게 되니, 그러한 然後에라야 病이 나올 것인즉 當用 五加皮壯脊湯이니라.

怒한즉 肝陰이 傷하고, 哀한즉 肺陽이 傷하게 되므로 深哀 嗔怒하게 되면 그 傷하는 度가 더욱 크게 되는 것이다.

朱震亨이 말하기를 噎膈病이나 反胃病은 皮(血)와 津液 等の 水土之物이 俱耗하게 되므로

胃脘이 乾枯하게 되어서 이루어지는 것인바, 萬若 그 枯가 위로 食道 附近에 있으면 물을 내려갈 수 있으나 食物은 내려갈 수가 없으며 내려간다고 할지라도 조금밖에 내려가지 못하므로 이것을 噎(목매일 열)이라고 하고, 萬若 枯가 胃 附近에 있으면 食物이 들어갈 수는 있으나 胃가 이것을 完全히 容納할 수 없으므로 얼마 후에 吐하게 되므로 이것을 膈이라고 하며 反胃라고도 하는바, 이 症은 大便이 秘結되어서 마치 羊屎와 같이 된다. 噎膈兩證은 病名의 區別이 있을 뿐이고 病은 一體乾枯之源에서 나온 것이다. 또 말하기를 上焦噎膈은 食物이 下咽하면 胃脘이 心臟 近處에서 아프다가 곧 吐出하면 痛症이 멎게 되고, 中焦噎膈은 食物이 내려갈 수는 있으나 胃가 容納하지 못하므로 얼마 후에 吐出하고 下焦噎膈은 朝食暮吐 暮食朝吐하는 것이다. 萬一 氣血이 俱虛하면 口에서 흔히 거품이 나오는바 거품이 많이 나오게 되면 반드시 죽을 것이요, 大便이 萬一 羊屎와 같으면 難治證이요, 또 淡食하지 않아도 難治하게 되는 것이다.

張鷟曰 噎은 當是 神思間病이니 惟內觀自養이라야 可以治之니라. 神思間病이란 것은 脾土가 調和作用을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邪火가 亢升함으로써 목구멍이 窒塞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을 神思間이라고 하는 것은(內經原理로 볼때) 心脾間이란 말이다. 神과 思의 作用은 心脾之間에서 일어나는 것인데, 噎症의 起病이 또한 心脾間에서 火土合德之用이 不均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므로 神思間病이라고 한 것이다.

東武의 論法으로 이것을 考察해보면 神은 肺

에서 이루어지고 思는 肝에서 이루어지는 것인 즉 神思間이란 것은 肺肝에서 일어나는 病이란 말이다. 이것은 異說이 아니다. 神思는 現象의 으로 보면 肺肝에서 일어나지만 그의 奧理를 따져보면 心脾에서 일어나기 때문이다.

龔信醫鑑에 말하기를 反胃噎膈之病은 그 受病原因이 同一하여서 虛實寒熱의 아무 곳에도 屬하지 않는 것인즉 神氣 中 一點에서 생긴 것이다. 神氣 中의 一點이란 것은 肺脾 中의 一點이란 말인즉, 肺脾 中의 一點은 바로 土이다. 土의 本性은 不寒 不熱 不虛 不實인즉 이 病을 治療하려면 다만 土化作用을 잘 하도록 誘導하여야 할 것이다.

此證은 太陽人 小腸病太重證也라. 必遠愼怒하고 斷厚味然後에 其病이 可癒니 此證에 當用 獼猴藤植腸湯이니라.

人間의 臟腑는 항상 呼吸과 出納作用을 交互 反覆하면서 生을 營衛하는 것이다. 太陽人은 肺大하므로 胃脘이 지나치게 呼하게 되어서 小腸吸氣가 이것을 牽制해 낼 수가 없게 되고, 肝小하므로 小腸吸氣가 不足하게 되어서 胃脘의 呼力을 더더욱 助長하게 되는 것이므로 噎膈反胃證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四象人이 各各 이러한 體質의 特徵이 隨伴되는 病이 있을 것은 勿論이다. 太陰人과 少陰人에게 諸種의 陷下證과 狹窄證이 隨伴하기 쉽고, 太陽人과 少陽人에게는 諸種의 亢上證과 分裂證이 뒤따르기 쉬운 것이다. 이와 같이 諸病이 隨伴되기 쉬운 것은 臟腑의 互用關係가 어그러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胃脘은 肺의 系統으로 呼에 屬해 있는 腑인즉 呼하기 爲한 吸作用을 하여야 하고, 胃는 納하기 爲한 出作用을

하여야 하고, 小腸은 嗅하기 爲한 呼作用을 하여야 하고, 大腸은 出하기 爲한 納作用을 하게 마련인 것이다. 그렇지만 臟의 大小가 있기 때문에 그들의 互用作用이 均衡을 잃게 되는 것인즉, 이것이 바로 體質에서 隨伴되는 病이다.

朱震亨이 論한 巴의 噎膈反胃證을 물어가로 되 「血液이 俱耗하고 胃脘이 乾枯하여 食物이 難入」이라고 하니 그것은 무엇을 意味하는 것인가? 그렇게 하게 하는 것은 脾요 水穀이 大腸에서 導出하는 것이나, 그렇게 하게 하는 것은 腎인즉 脾腎은 水穀을 出納하는 府庫인바, 이것은 脾腎이 서로 補瀉하면서 出納하고 있기 때문이다. 氣液은 胃脘에서 呼하나 그렇게 하게 하는 것은 肺요 小腸에서 吸하나, 그렇게 하게 하는 것은 肝인즉 肝肺는 呼吸氣液의 門戶인바, 이것은 肺肝이 서로 進退하면서 呼吸하기 때문이다. 少陽人의 大腸은 비록 水穀을 나아가게 하지만 乾枯하게 될 것이고, 太陽人의 小腸은 氣液을 吸收하는 것이나 陰涼之氣가 不足하므로 胃脘이 呼氣液할때에 陽溫之氣가 必盛하게 된다. 胃脘에 陽溫之氣가 太盛한즉 胃脘의 血液이 乾枯하게 될 것은 勿論이다. 非但 乾枯하게 될 뿐만 아니라 中吸之氣가 不足하게 되기 때문에 水穀이 吸되지 못하고 反呼出되는 것이다.

少陽人이 嘔吐가 있으면 반드시 大熱이 있고, 少陰人이 嘔吐가 있으면 大寒이 있고, 太陰人이 嘔吐가 있으면 반드시 病이 낫게 된다. 여기에서 말하는 噎膈反胃는 不寒 不熱 非實 非虛인즉 太陽人病이다. 解休이란 上體가 完健하고 下體가 풀린 것 같아서 足無力而不能行去하는 것인바, 少陰人 少陽人 太陰人이 이와 같은 病證이 있으

면 他證이 疊出할 뿐 아니라 寒不寒 熱不熱 弱不弱 壯不壯할 理致가 없을 것이다.

太陽人의 噎膈病은 解休病보다 重한즉 怒心에 傷한 것이 哀心에 傷한 것보다 重한 것이다. 太陽人이 萬一 哀心이 深着하게 되어서 哀性이 傷하게 되면 表氣를 傷하고, 怒心이 爆發하게 되어서 怒情이 傷하게 되면 裏氣를 傷하게 되는 까닭이다.

解休病에서는 哀性和 怒情을 兼하여 警戒하였던 것이다. 少陽人의 怒性은 口와 膀胱氣를 傷하며 哀情은 腎大腸氣를 傷하고, 少陰人의 樂性은 目筋之氣를 傷하며 喜情은 脾胃之氣를 傷하고, 太陰人의 喜性은 耳와 腦顛之氣를 傷하며 樂情은 肺와 胃脘之氣를 傷한다.

性은 表氣를 傷하므로 病輕하고 情은 裏氣를 傷하므로 病深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四象人의 哀怒喜樂之情은 哀怒樂喜之性보다 受病이 尤甚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太陽人은 大便이 滑해야 하고 들째로 體大하면서 많아야 한다. 小便은 많아야 하고 자주 보아야 한다. 面色은 희어야 하고 검어서는 안 되며, 肌肉은 살이 없어야 하고 肥厚하여서는 안 되며, 鳩尾下가 塊堅하여서는 안 되는 것인바 塊가 작으면 消滅시키기 쉬운즉, 病도 또한 輕하고 塊大하면 消滅시키기 어려운즉 病도 重한 것이다.